

음악회와 함께하는 사진전 '낭만'

<무등산 풍경소리>

7~9일 아하 갤러리
이상록·최명진 등 참여

7일 무등산 풍경소리
행사도 함께 열려



▶ 최명진 작 '바이칼'

피아니스트 이상록씨와 무등산 풍경소리를 이끌고 있는 최명진 목사는 지난 3월 함께 바이칼을 방문했다. 5월에는 마당극 배우 오숙현씨 등 몇몇 지인들이 합류해 태국에도 다녀왔다. 그들이 바라본 풍경과,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삶의 시선은 그대로 '사진'에 담겼고, 그 사진들로 작은 사진전을 열면 어떨까 생각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사회 운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만나왔던 이들이 함께 사진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판이 조금 커졌다. 기타리스트, 시민운동 활동가, 마당극 배우, 독립서점 운영자, 목사... 그들이 '낭만'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7일~9일(오전 11시~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 옆 아하 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전은 146번째 '무등산 풍경소리'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전시 참여자는 곡우영(기타리스트·보헤미안 대표), 김민경(시민운동활동가·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순(인권활동가·광주전남추모연대 사무국장·광주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태성(사진작가·광주시 흥보실), 류의남(민중가수·싱어송라이터), 양지애(출판인·독립서점 파종모종 대표), 오숙현(마

당극 배우·놀이패 신명 전 대표) 이진우(뮤지션), 조수란(미디어작가·울산시청 자미디어센터 교육팀장), 최경훈(사진가·무등산풍경소리)씨 등이다.

이상록씨는 바이칼 풍경과 오래전 유럽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하며



오숙현 작 '태국 뻘이'

오숙현씨는 태국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내놓았다. 다른 이들은 여행 풍경, 5월의 망월 국립묘지 등 각자가 바라보는 '삶의 시선'들이 담긴 소품들을 내놓았다.

전시회 제목 '낭만(浪漫)'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다.

최명진 목사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세상이 좀 나아지고 편안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낭만'이라는 제목을 떠올렸다"며 "전시작은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풍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7일 오후 7시에는 무등산 풍경소리 행사도 함께 열린다. 피아니스트 이상록, 소프라노 류형민, 곡우영, 김기봉, 류의남, 조인호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무대다.

또 이야기 손님으로는 무등산 풍경소리지기인 연광 스님과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봉주 광주전남추모연대 공동대표가 함께한다. 문의 070-4135-08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문학 30일까지 7월 강좌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문학이 7월 새 강좌를 개설했다. 오는 30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개최되는 45기 강좌는 인문학, 철학,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 참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강좌는 월·화·수요일(오후 7시

30분) 강좌와 월·목·토요일(오후 2시) 강좌로 나뉘어 열린다. 월요일에는 안철진 음악해설가의 '일상의 클래식 선율을-건강한 여름을 위한 영상음악'(오후 2시)과 우동필 교수의 '궁극적 행복이란 무엇인가'(오후 7시 30분)가 진행된다. 화요일에는 김청우 박사의 '시창작, 이

론에서 실기까지', 수요일에는 명혜영 교수의 '몸의 철학, 때를로 품되 '지각의 현상학'을 토대로 강독과 토론이 이어진다.

목요일에는 한강의 소설 '환'을 텍스트로 음독과 비평이 진행된다. 토요일 무비토크 시간에는 '영화인문학-일본장르루비 특별전'이 예정돼 있다.

수강료는 회원제, 강좌에 따라 다름. '내이버 카페' '광주시민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

서암전통문화대상에 박문종 작가

남종화 수묵 전통 바탕 작품 활동...10일 시상식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이 수여하는 '제 7회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 수상자로 한국화가 박문종(60·전통 회화 부문·사진) 작가가 선정됐다.

재단은 4일 문화예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9명의 후보자 가운데 박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암전통문화대상은 전통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화친그룹 설립자 고(故) 서암 권승관 명예회장(2004년 작고)의 뜻을 기려 설립한 서암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예선 예술가에게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답양 출신인 박작가는 남종화의 맥을 잇는 의재 허백련 선생 제자들이 운영해 온 '연진회'에서 수묵을 접한 후 지금까지 남종화 수묵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통적 양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작품 소재를 현대 삶속으로 확장, 전통 회화의 현대적 해석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1980년대에는 시대의 아픔을 수묵화로 표현했으며 1990년대에는 '황토밭에서' 등 '황토 바람 시리즈'로 남도 정서를 추구하고, 이후 '농경도' 등 농경 문화와 땅을 소재로 한 작업을 통해 향토적 미감을 살려왔다.

현재는 '땅과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대인 시장 등 현장미술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미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광수 평론가는 "박문종은 전통의 해석에 있어서나 방법적 실천에 있어 뛰어난 의식을 가진 작가"라며 "개별적으로 많은 활동과 경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서 각종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그 역할이 높기 평가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일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로즈홀에서 열린다.

서암전통문화대상은 무용, 기악, 공예 등 다양한 분야 예술인들에게 수여하며 역대수상자는 이춘봉, 박종석, 윤진철, 김재섭, 서영, 최석현씨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중앙아시아 이야기 담은 그림책 출간

도서관 등 150곳 무료 배포...8월까지 신청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ACC)이 어린이도서 전문 출판사 비룡소와 함께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출간했다.

ACC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와 함께 아시아 스토리커뮤니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그림책은 아시아 스토리 워크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리나라 그림 작가 5명과 중앙아시아 각국 문화부가 선정한 글 작가 5명이 함께 참여해 제작됐다.

중앙아시아 이야기 그림책은 실크로

드 도시와 초원에서 살아왔던 민족들의 독특한 문화와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출간작은 키르기스스탄의 '용감한 보스테리'(권아라), 타지키스탄의 '사랑에 빠진 공주'(김성희), 투르크메니스탄의 '세상에 서 가장 잘 웃는 용'(이은지), 우즈베키스탄의 '나르와 눈사람'(정진호), 카자흐스탄의 '세해는 언제 시작될까?'(정현진)로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로 출간됐다.

ACC는 출간된 책을 각종 도서관과 다문화센터 등의 신청을 받아 150곳에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신청서



는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책은전국의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01-404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계영 시인 첫시집 '시간의 무늬' 펴내

김계영 시인이 첫 시집 '시간의 무늬'(시산맥·사진)를 펴냈다.

시산맥기획시선 51번째로 발간된 작품집에는 모두 50여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자아에 대한 탐색이 주를 이루는 시들이 엮여 있다.

시 속의 화자는 익숙한 시공간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곳을 떠돈다. 잠잠히 내면을 성찰해 시상을 이미지화하는 화자와 달리, 유영을 통한 시상의 전개는 역동성을 부여한다. 그렇다고 화자의 움직임이 정형화돼 있거나 억지스럽지는 않다.

"도시의 불빛을 타고/ 저 홀로 높이만 한 때무새였다/ 어둠의 별판 건너/ 짓무르듯 뒤지다가/ 울음도 멎은 집 앞에 멈추었다// 낮은 호흡으로 산 자와 죽은 자/ 서로의 명을 풀어주느라/ 슬픔 한 덩어리 가슴에 묻어갔는지/ 풀 한 포기 삶이며/ 땅 내음 맡으며 가지개를 켜고 있는/ 벌레들의 삶이며/ 새벽녘에 만난 영혼도 쫓겨두었지..."

표제시 '시간의 무늬'는 때무새의 시각으로 바라본 장례식장의 풍경이다. 화자는 때무새의 시각을 빌어 우리 삶의 쓸쓸함과 외로움 생의 본질을 따스한 시선으



로 그려낸다. 군더더기 없는 정갈한 시어와 낮고 깊은 어조, 수묵화와 같은 색조는 특유의 울림을 선사한다.

한편 전주 출신의 김 시인은 1998년 계간 '포스트모던'으로 등단했으며 2012년부터 '시산맥'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전주 MBC 아나운서를 역임했으며 재능시낭송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